

Animal Medical Center의 연수교육을 받고나서

송 경 섭*

임상을 하시는 분들과 앞으로 임상을 하실 분들과 제가 다녀 온 Animal Medical Center를 소개함과 동시에 이 연수교육과정에 대해 모르시고 계신분, 관심을 갖고 계신분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실 여러분께 자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진작부터 애완동물쪽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은 자그마한 의욕을 자아낼 뿐 저에게 많은 발전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小動物病院에 근무를 하는 동안에도 짧은 경험과 부족한 지식 탓으로 어려움에 부딪치기도 하고 때론 운이 좋게 극복하기도 했지만 나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중 AMC를 알게 되었습니다. AMC는 1981년 이후로 13년째 임상수의학에 있어서의 Intensive Post Graduate Program(IPG)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은 외국인 수의사를 위한 것으로서 임상에 있어서 질적향상과 수준 높은 미국의 수의임상기술을 배우고자 하시는 임상가분들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AMC의 이 교육과정을 거쳐간 수의사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300명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부류는 두 부류로 나뉘집니다. 하나의 부류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외국인 임상가들이고 또 한 부류는 미국수의사 면허를 준비하면서 National Board Examination(NBE)과 Clinical Competency Test(CCT)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하는 외국인 수의사들입니다. 이들에게 이 과정은 미국수의사 면허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지에서 우리 한인수의사들은 LA에서 Study group을 이루어 공부를 하고 들 있기에 미국수의사가 되길 원하시는 분은 그 Study group에 합류하시는 것이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AMC에서 진료하는 동물들은 개, 고양이, 새와 같은 일반적인 애완동물과 토끼, 햄스터, 담비, 거북이, 뱀, 이구아나 등의 특이한 애완동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료건수는 연간 거의 70,000건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전문의가 약 24명 각각의 전문의 밑에 레지던트와 인턴과정에 있는 수의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원은 뉴욕시의 맨하탄에 위치한 9층의 건물이며, 건물내에는 여러가지의 최신장비, 입원실, 도서관, 세미나실, 시청각실과 식당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Small Animal Medicine and Surgery의 Part I, Equine and Food Animal의 Part II 그리고 Clinical Rotations의 Part III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art I 교육은 AMC에서 10주간 1주일에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의 이론 교육입니다. 과목은 Physical exam and history taking, Emergency medicine, Restraint, Radiology, Anesthesia, Fluids/Electrolyte balance, Cardiopulmonary medicine, Gastroenterology, Urology, Endocrinology, Dermatology, Immunology, Cancer medicine, Avian/Exotic medicine, Soft tissue and Orthopedic Surgery and Client relations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Part II는 9일간 72시간에 걸쳐 주로 말에 관

* 우리 종합동물병원

한 교육으로 Medicine, Surgery, Anesthesia, Pathology, Reproduction, Poultry, Radiology, Nutrition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교육은 장소를 옮겨 Pennsylvania주에서 실시됩니다.

Part III는 최소 2주 단위로 임상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구성원은 각 팀이 전문의, 레지던트, 인턴과 외국인 수의사로 이루어지며 외국인 수의사는 진료 및 수술과정에 직접 참관하며 보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단 Part II와 Part III 교육은 Part I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상을 하실 분들과 하시는 분들에게 Part III는 가장 큰 관심사가 될듯 싶습니다. 내용은 Medicine(내과)와 Surgery(외과)로 크게 분류되며 Medicine 부문에는 Cardiology, Gastroenterology, Neurology, Nephrology, Surgery부문에 Neurologic/orthopedic Surgery와 Soft Tissue Surgery 그리고 Dentistry가 있습니다. 그 외에 Oncology, Dermatology, Ophthalmology, Pathology, Exotics(개, 고양이 이외의 애완동물)가 있습니다. 이들 과목중에 Part I 교육을 마친자에 한해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Part I, II, III의 각 과정에서 토의와 약간의 문답식 대화는 있지만 시험과정은 없습니다.

Part I을 마쳤을 경우에 수료식과 함께 수료증이 수여되며 Part III는 각 과목별로 증서를 받게 됩니다. 가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숙식, 교통, 교육비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AMC에서 알선해 주는 주거지는 맨하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 AMC와 가깝다는 점과 인종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맨하탄에서 외국인과 좀 더 자주 접할 수 있고, 미국문화와 다른 외국인의 문화를 약간은 접할 수 있다는 잇점은 있지만 몇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다른 지역에 비해 방값이 매우 비싸다는 것입니다. 한달 방값만 \$500~600(40만원에서 48만원)정도를 예상해야 합니다. 여기에 전기, 수도세와 연료비는 포함됩니다. 어떤 경우는 정해진 시간속에서 저녁식사 한끼 정도는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뉴욕이 초행인 분들이 한국인이 많지 않은 지역에 주거지를 얻을 경우 생활과 식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언어문제도 생활하는데 지장을 주는 요인중의 하나입니다.

교통은 버스, 전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버스와 전철요금은 거리에 관계없이 \$1.25(1,000원)정도로 버스와 전철 모두 똑같은 토큰을 사용합니다.

식사는 알선해 준 주거지를 이용할 경우 대부분 사먹어야 하는데 한끼에 \$4~8(3,200~6,400원)정도 예상해야 합니다.

AMC에서 주선해 주는 주거지외에 다른 곳을 구하실 경우에는 뉴욕에 계신 친인척이나 친구분을 통해 방을 직접 구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맨하탄외에 퀸즈, 브롱스, 브루클린,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5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퀸즈 지역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이중 다른 지역에도 한국인들은 살고 있지만 방을 구하실 경우에는 퀸즈라는 지역에서 구하는 것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식료품점을 쉽게 접할수가 있고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생활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방세는 Roommate와 같이 쓸 경우 \$200~400(16~32만원)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Roommate는 미국인을 얻을 경우 미국문화를 배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의식주 문화가 다른 미국인을 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유학생들은 한국인 Roommate를 구하게 되고 집에서는 한국 문화속에서 생활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식기도구가 있을 경우에는 아침과 저녁은 집에서 해먹을 수가 있습니다.

퀸즈에서 맨하탄까지 교통은 전철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며 비용은 1,000원 정도이며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퀸즈에서의 식비와 다른 생활비는 각자가 생활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겠고 서울의 생활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점심식사는 AMC내의 식당이나 AMC에서 한 블럭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국식료품점에서 사먹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비는 Part I 10주간 \$4,300(344만원)정도이며 이중에 \$350(28만원)정도는 외환은행을 통해 미리 신청비로 내야 합니다. Part II는 9일간 \$1200(96만원)정도, Part III는 2주간 \$250(20만원)정도 내야합니다. Part I 교육은 1년에 두번 1월과 7월에 시작되고 Part II 교육은 Part I이 끝난 직후에 실시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여권사진 2매, 수의학과 졸업증명서 그리고 \$350(28만원)의 신청료입니다.

뉴욕시에서 생활을 하실 경우 휴일에는 뉴욕 시내에 있는 관광지나 근교에 있는 유명한 곳을 관광하시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와 우리 재미교포들의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 미국 사람들의 생활과 세계 각지의 사람들 모습과 생활 속에서 어느정도 자신을 되돌아보고 가치관을 재확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수업을 받는 외국인 수의사중에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부족했다고 느낀 점을 약간이나마 말씀드려 가시고자 준비하실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수업은 슬라이드나 프린트물 그리고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이중에 강의를 완벽하게 소화해 낸다는 것은 미국인이 아닌 이상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임상적인 지식이 부족했고, 언어실력도 짧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심있으신 분은 미리부터 언어나 임상에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상에는 볼 일, 들을 일, 해볼 일, 공부할 것, 가볼 곳, 만날 사람들 등이 많지만 살아가는 동안 느끼지도, 스쳐지나 가지도, 보지도 못할 일들과 사람들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것을 항상 느끼면서 살고 부족함을 인식하고서 발전적인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간안내

「착유환경과 원유위생관리」 출간

손봉환 박사(인천직할시 가축위생시험소장)가 집필하고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비매품)가 발행한 「착유환경과 원유위생관리」가 출간되었다. 원유위생관리와 유량증가 그리고 우유의 신선보관을 위한 착유생리, 정상착유방법, 유방염 관리, 착유기 다루기, 우유의 냉각 등이 주요내용으로 되어있는 본서는 약 400쪽이다.

그러나 우리 말로된 기술지침서가 없었던 차제에 실무와 이론을 정리한 본 책은 정부시책과도 시의에 맞아 낙농가와 지도자들에게 큰 힘이 될것으로 보인다.